

제16권 11호

2026. 6. 8 ~ 2026. 6. 21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1인가구의 금융라이프 파트너, 금융회사의 미래
- 이슈분석 AI 확산에 따른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
- 금융경영브리프 Customers Bank, OpenAI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싱가포르, 초고액자산가 유치 위해 WMI 규제 전격 완화
- 국제금융이슈 '킹 달러론'과 '달러 폭망론'으로 본 원·달러 환율 전망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연구위원	윤선영(sunyy)
------	------------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문태(kmt)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서유나(yuna.seo)
연구원	이예린(yerin.lee)

국제금융이슈

연구자문위원	한상춘
--------	-----

금융지표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	----------------

제16권 11호

2026. 6. 8 ~ 2026. 6. 21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1인가구의 금융라이프 파트너, 금융회사의 미래
- 04 **이슈분석** AI 확산에 따른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
- 08 **금융경영브리프** Customers Bank, OpenAI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싱가포르, 초고액자산가 유치 위해 WM 규제 전격 완화
- 12 **국제금융이슈** '킹 달러론'과 '달러 폭망론'으로 본 원·달러 환율 전망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1인가구의 금융라이프 파트너, 금융회사의 미래*

윤 선 영 연구위원

1인가구는 청년/노년층 비중이 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편이나, 20대-50대 근로 중인 1인가구는 현재 삶에 만족하며 차별화된 소득·재정 관리를 원한다. 이들은 가족 부양 대신 본인의 노후 준비에 초점을 맞춰 안정·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주택을 노후 소득원으로 염두에 둔다. 또한 금융을 어려워해 확신을 얻기 위한 소통을 선호하고, 거래 충성도가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금융사는 이들의 금융거래·재정관리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익개선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필수적 대응일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내 2,200만 가구 중 804만이 1인가구이고 연령별로는 전체 대비 청년/노년층이 두텁다고 분석했다. 연 소득(3,423만 원)은 다인가구보다 낮고(가구원 수 효과 제외) 자가 보유율도 32%(전체 57%)에 머물러 정부·지자체는 재정 취약 및 질병, 고립 등을 고려해 맞춤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 중 20대-60대 취업자를 보면, '22년-'24년 취업률은 상승, 소득은 다인가구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CAGR 전체3.1%vs.1인4.4%). 전체 대비 전문/기능직 비중도 1인가구가 더 높다. 이에 시장에선 가족 부양 부담이 적고 경제·소비력이 있는 1인가구를 타겟해 워너비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상품·서비스로 차별화 마케팅한다. 그렇다면 1인가구에 특화된 금융 오피는 충분한가? 다른 생애주기, 금융니즈를 가진 1인가구는 일반적 손님 구분(연령, 자산 등)이 아닌 특화된, 그 자체로 이해돼야 한다.

❖ 근로 중인 1인가구는 삶에 만족, 경제적 관심사가 중요

20대-50대 근로소득이 있는 1인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사의 설문 결과를 보면, 1인가구 10명 중 9명은 싱글(이혼/사별 포함)이지만 향후 결혼 의향이 없거나 계획 없다는 응답이 과반이다. 혼자인 삶에 불만족인 응답은 3%에 불과하고 누군가와 동거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만족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할 만큼 현재 삶에 만족한다. 즉, 20대-50대 근로 중인 1인가구는 혼자 있어 불안하거나 고립을 우려하기보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없이 지금의 자유를 즐기며 나만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발적, 적극적 손님균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근로 중인 20대-50대 1인가구는 현재 삶에 만족하며 1인가구 유지 의향 높음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현재 1인가구는 적정 소득 대비 90% 충족, 삶의 만족에 경제적 요인이 특히 중요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425만 원이고, 1인가구 적정 소득은 477만 원으로 인식해 적정수준 대비 약 90% 충족되고 있다. 소득의 42%는 본인 또는 가족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비슷한 비중(40%)은 저축·투자에 할애한다. 나머지는 대출 상환 후 잉여자금으로 둔다. 소득의 반은 쓰고 반은 모으는 셈이므로 소득 운용이 균형적인 편이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잉여자금으로 저축·투자를 늘려 지금보다 10%정도 더 모으려고 계획한다. 이를 위해 외식이나 간식은 자제하고 앱테크/포인트/카드 혜택/멤버십 등을 활용해 알뜰한 소비를 실천한다. 1인가구 삶의 만족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 48%로 월등하다. 건강 등 먹고 사는 문제(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은 34%이고, 인간관계 등 사회적 요인은 18%로 후순위다. 특히 나이가 젊은 1인가구는 자산 증식, 목돈 마련의 니즈가 더욱 절실하다.

● 경제적 관심사 1위는 투자, 2위는 노후 준비

안정·장기적 투자 및 주택 관련 금융상품도 노후 준비와 관련

1인가구의 경제적 관심사 1위는 투자 및 자산 증식(64%)이고 2위는 노후 준비(55%), 3위는 저축/목돈 마련(51%)으로 1~3순위 응답 모두 과반이 선택할 만큼 관심이 높다.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크지 않은 1인가구는 저축·투자의 목적이 본인의 노후준비에 맞춰져 있어 향후 1인가구로 지낼 의향이 높을수록 연금 상품의 가입률 및 예치금액도 높아진다. 이들은 투자를 할 때도 기간을 길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1인가구 10명 중 3~4명만 주택을 보유한 만큼 주택 청약상품(67%) 보유율은 일반 적금(55%)보다 높고, 내 집을 갖기 위한 목돈 마련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젊은 1인가구에게 주택 마련은 투자라기보다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생애 주요 이벤트가 된다. 다수는 은퇴 후 주택연금 활용 의향을 ‘높거나(44%) 보통(35%)’이라고 응답해 노후 소득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활발한 투자거래 대비 자기 확신은 미흡,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금융정보가 어려워서

일반 금융소비자가 투자상품보다 저축상품에 더 많은 돈을 예치한 것과 달리 1인가구는 금융자산 중 저축상품(26%)과 투자상품(27%)에 예치한 비중이 비슷해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응답자의 85%가 주식을, 51%가 ETF를 보유하고, 금/은의 현물과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비율도 각 30%정도로 투자상품을 많이 보유한다. 그러나 활발한 투자행태와 다르게 투자(자산관리) 의사결정 시 자신감은 부족한 편이다. 10명 중 3명만 투자 의사결정의 확신을 갖고, 본인이 새로운 투자 방법이나 상품 정보에 민감하다고 자평한다. 이들은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금융정보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

에 재정 관리에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일반 소비자보다 AI의 활용이 낮고, 직원/대면 채널의 신뢰(기대)가 더 높은 것도 특징이다. 금융/투자 정보원이 제한적인 1인가구는 셀프 채널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보/가이드를 받고, 대면 세미나, Q&A소통 등으로 본인의 선택에 확신을 얻길 바란다.

❖ 높은 충성도, 장기적 관계를 위한 금융 파트너 필요

근로 중인 1인가구 중 과반은 주거은행을 평균 10년 이상 거래하고, 10명 중 1명만 주거채 변경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앱 사용이 빈번한 곳을 주거채로 인식하지만, 이들은 금융거래가 가장 많은 곳, 오래 거래한 곳을 주거채로 인식하며 ‘편의성’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 이는 1인가구의 금융 니즈에 공감하고 맞춤형으로 제안한다면 다른 손님군보다 더 효율적으로 거래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인가구 10명 중 8명은 ‘1인가구를 위한 금융상품·서비스가 기존과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세제 혜택/우대 금리와 같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부담없는 저축·투자 실천으로 거래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금융 이슈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거래하려는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해 유사 시를 대비한 현금 유동성 확보(중도인출, 해지) 및 소액 적립, 납입 주기 자율 등 다양한 거래 옵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없는 넋지로 금융 실천을 지속하도록 독려하고, 금융 트렌드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 금융에 대한 이해 및 대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1인가구는 다인가구와 다른 생애 이벤트 및 금융 필요를 겪고, 이에 1인가구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 포트폴리오 추천·관리의 차별화를 기대한다. 따라서 전 생애 재정 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이슈(질병 대처, 주택마련, 은퇴·노후준비 등)를 안내해 금융 목적을 선 제안해야 한다. 이후 소득 및 지출 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 구체적 솔루션, 실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 맞춤 관리의 체감을 높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일상 전반(건강 관리, 청소/세탁 등 살림, 이사/수리 등 주거 관리)을 금융과 연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라이프 파트너로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 맞춤 금융은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선 과제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수익성 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선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충성도 높은 1인가구
위해 맞춤 금융실천
독려로 거래 집중도
제고

1인가구 생애 이벤트
및 건강/살림/주거의
부가 관리로 라이프
파트너 역할

AI 확산에 따른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

김 문 태 연구위원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AI 성장 기대감과 '생산적 금융' 확대로 AI 인프라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프라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AIDC 특별법' 제정과 차세대 냉각 시스템 상용화에 따른 인프라 개발의 법적·기술적 장애 요인 해소도 긍정적이다. 향후 AI 인프라는 지속 성장이 예상되나 지역 주민의 우려, 송전망 확충 지연, 불확실한 테넌트 수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 AI 산업의 발전으로 밸류체인 전반에 활용되는 AI 인프라의 중요도 또한 상승

-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넘어, 이를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하드웨어 및 인프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
- AI 밸류체인은 크게 '데이터 확보 및 정제 → AI 모델 학습(Training) → 모델 추론(Inference) → 최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며, 'AI 인프라'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으로 작용
- AI 인프라의 물리적 본체인 데이터센터는 서버를 적재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초고성능 컴퓨팅(HPC)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종합 플랜트(AI 공장)로 기능
 - AI 인프라의 핵심 시설인 AI 데이터센터는 모델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량의 증가로 인해 컴퓨팅 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전력 사용량이 급증 (기존 랙당 5~10kW 수준이었던 전력 밀도가 40~100kW 이상으로 증가)

■ AI 데이터센터(AIDC)와 일반 데이터센터 비교

구분	일반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
주요 목적	범용 연산 및 데이터 저장·관리	AI 학습 및 추론 작업 최적화
하드웨어	CPU 기반의 서버	AI에 특화된 고성능 전용 하드웨어 사용 (GPU, TPU 등)
연산 처리 능력	데이터처리와 네트워크에 중점	대량의 병렬 연산 및 고성능 컴퓨팅 지원
스토리지 요구사항	주로 대용량 저장소를 요구	고속 입출력(I/O)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전력 소모	AI 데이터센터 대비 낮은 전력 소모	AI 연산으로 인한 높은 전력 소모
냉각 시스템	표준 냉각 시스템 사용	고성능 하드웨어를 위한 특수 냉각 필요
주요 기술	범용 컴퓨팅 기술	고속 메모리 공유, 고성능 냉각 시스템 등

자료 : SK텔레콤, 언론자료, 하나금융연구소

■ AI 인프라는 건축물(데이터센터), 연산, 냉각, 전력, 운영 등으로 구성됨

- 과거 범용 IT 환경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의 초거대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천문학적인 파라미터의 연산량과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고전력·고밀도 인프라의 확보가 밸류체인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AI 인프라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를 비롯하여 RACK, 수배전설비, 발전기 및 배터리, 무정전 전원장치(UPS), 냉각시스템,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DCIM)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보안 및 방재 시설 등이 포함
 - AI 인프라의 전력 사용량 증가는 전력을 무손실로 공급하는 수배전설비와 과도하게 발생하는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혁신적인 냉각시스템의 도입을 촉진
- 최근 AI 인프라 내부에서 개별 칩셋의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면서 전체 시스템 성능의 병목 현상은 연산 장치(Compute)에서 네트워크 전송(Network)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광통신 기술이 부상
 - 노드 간 데이터 전송의 지연 시간(Latency)이 전체 학습 효율을 좌우하며, 이에 따라 기존 구리선 기반의 물리적 한계와 전력 사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광 인터커넥트(Optical Interconnect)’ 기술이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공급 측면] AI 인프라 공급의 마중물,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 증가하는 국내외 GPU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CSP)들은 AI 인프라 중심의 사업 확대를 추진
 - NHN 클라우드의 서울 양평 리전, 광주 국가 AI DC 구축을 비롯하여, 네이버, SKT, 삼성SDS 등 ICT 업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
- AI 인프라가 천문학적인 초기 자본(CAPEX) 지출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권은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확대

■ AI 인프라 구성 요소

분류	세부 구성 요소	AI 도입에 따른 인프라 변화 및 핵심 요구사항
건물 및 물리 공간	데이터센터 건축물, 서버룸 상면, RACK	- 고하중 AI 서버 랙 지지를 위한 건축물 바닥 하중 설계 강화 - 냉각 배관 및 초고압 전력선 배치를 위한 층고 및 이중마루 공간
IT 연산 및 네트워크	AI 서버, 스토리지, GPU/NPU, 광통신 장비	- 고성능 반도체 기반의 초고밀도 집적 - 대용량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및 고속 병렬 처리 노드 구성
전력 및 백업	수배전설비, 발전기, 배터리, UPS	- 랙(Rack)당 요구 전력(kW) 급증에 따른 초고용량 전력망 확보 - 무중단 운영을 위한 안정적 무손실 전력 공급망
기계 및 공조	냉각시스템 (Cooling System)	- 기존 공랭식(Air Cooling)의 열역학적 한계 도달 - 수랭식(Liquid Cooling) 및 액침 냉각 등 차세대 열 관리 필수
운영 및 보안	DCIM / EMS, 보안 및 방재 설비	- 실시간 전력사용효율(PUE) 모니터링 및 최적화 - 고집적 환경에 특화된 화재 감응형 소화 용합 시스템 적용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연구소

- 국내 주요 금융사의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 확대는 신속한 AI 인프라 공급의 마중물로서 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
 - 하나금융그룹은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및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추어 부천 삼성동 및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AI 허브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에 각각 1,500억원씩, 총 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 신한금융과 KB금융 또한 각각 남양주 왕숙 AI 디지털 허브 투자,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AI 인프라 산업에 자금을 공급

■ [수요 측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전환으로 국내 인프라 수요 또한 확대

-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전사적인 생산성 혁신 도구로 정착하면서 국내 AI 인프라 수요 또한 확대되는 양상
 - 2025년 기준 55.7%에 머물렀던 국내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불과 1년 만인 2026년에 85%까지 급증할 전망(메가존클라우드 전망 보고서)
- AI 시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는 상황 하에서, 오픈소스 및 플랫폼 모델 발전, AI 에이전트 확대, 정책 지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 현재 업무용 AI 활용은 ‘생성형 AI’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 조직 및 업무 단위 전반을 포괄하며 사람과 시스템이 책임을 분담하는 ‘AI Agent(자율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인프라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
 - AI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명확한 업무 정의와 기준, 엄격한 사내 데이터 보안 및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므로 도입 장벽은 높으나, 다수 에이전트의 상호작용 및 기업 맞춤형 시스템을 위해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지님
- 기업 내 AI 거버넌스 구축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인프라를 최적화해 주는 B2B 특화 관리형 서비스(MSP) 수요가 동반 상승
 - 이에 따라 삼성SDS, SKT 등은 기업용 솔루션(페브릭스 등)을 경쟁적으로 출시

■ 국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사례

투자 주체	투자대상	투자 내용
하나금융	부천 삼성동 및 인천 구월동 AI 허브센터 개발사업	- 총 3,000억 원 투입 - 초고집적 서버 구축 - 2028년 준공 목표
신한금융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AI 디지털 허브	- 그룹 미래 AI 기술 선도 거점 마련
KB금융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 결성	- 1조 원 규모 펀드 결성 - 지역 인프라 조성 및 관련 PF 금융 지원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연구소

■ 기업 부문의 AI 수요 증가 원인

증가 원인	내용
AI 시대의 선제적 대응	- 마케팅 및 업무 방식의 핵심 트렌드로 AI가 부상
오픈소스 발전	- 오픈소스(Llama, Gemma, Qwen 등) 발전으로 로컬 시스템 구축이 용이해짐
AI 에이전트 확대	- AI 에이전트 관련 기술이 표준화 및 고도화되며 수요 확대
정책적 지원	- 국가 대표 AI 사업, 피지컬 AI, AI 바우처 등으로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
B2B 솔루션 다양화	- 페브릭스(삼성SDS), 에이닷엑스(SK) 등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출시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연구소

■ AIDC 특별법과 차세대 냉각 시스템 등은 AI 인프라 개발의 법적·기술적 장애를 해소

- ‘AI 글로벌 3강’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하에서, AI 국가 경쟁력 확보의 장애 요인이었던 인프라 인허가 지연과 전력망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DC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
 - 인허가 지연 시, 허가 승인을 간주하는 ‘일괄처리제(타임아웃제)’ 등을 포함
- 기술적으로는 AIDC의 과도한 전력 사용 및 발열을 완화하기 위한 D2C 수랭식 시스템, 차세대 액침 냉각 등의 기술이 실증을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에 진입
 - D2C(Direct-to-Chip) 수랭식 시스템: 서버 칩셋 표면에 직접 특수 냉각수를 순환
 - 차세대 액침 냉각(Immersion Cooling) : 서버 전체를 비전도성 액체에서 운영
- 다만, 법적·기술적 장애 요인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프라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수자원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지역 주민의 저항에 직면
 - 이에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투명한 운영, 지역 사회와의 상생 도모 기금 마련, 폐열을 활용한 지역 난방 및 스마트팜 연계 비즈니스 모델 등이 요구됨

■ AI 인프라는 수요 증가, 정책 지원, 생산적 금융 등으로 성장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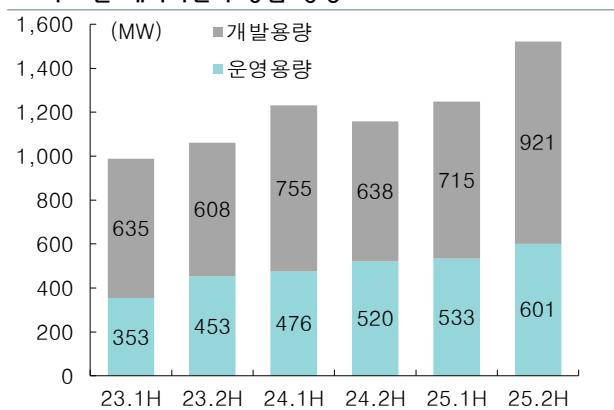
- 국내 AI 인프라는 기업 ‘AI 전환’ 중심의 수요 증가, 정부의 AI 육성 정책, 금융권의 적극적인 생산적 자본 유입 등이 맞물려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5년 수도권 DC 공급 대기 물량은 921MW로 기존 보유 물량(601MW)을 초과
- 기술적 측면에서는 광통신 기반의 무손실 네트워크 환경이 확산 중이며,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통해 ESG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형태로 변화될 전망
- 다만 송전망 확충 지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전력 불균형, 불확실한 임차 수요로 인한 엑시트(Exit) 리스크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 

■ AIDC 특별법의 핵심 내용

구분	내용
인허가 일괄처리 (타임아웃제)	- 관계 부처의 인허가 심의가 정해진 법정 기한을 초과할 시 자동 승인 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평가 면제	- 지방에 건설되는 AI 데이터센터에 한해 전력망 연계 영향 평가 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통합 자문 및 상생 협력 추진	- 과기정통부 장관 주도 실태조사, 기후부 협력 안정적 에너지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자료 : 과기정통부, 언론자료, 하나금융연구소

■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 동향



자료 : cushmanwakefield, 하나금융연구소

Customers Bank, OpenAI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서 유 나 연구원

미국 지역은행 Customers Bank는 OpenAI의 기술팀이 은행에 상주하며 AI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2년간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무이자예금 및 수수료 수익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를 보이는 등 AI Native 은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사들도 빅테크의 핵심 인력과 협력해 코어 banking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에 나서고 있어, 국내 금융그룹들도 AI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지역은행 Customers Bank, OpenAI 기술팀을 직접 상주시켜 AI 역량 고도화를 추진^[1]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지역은행 Customers Bank는 OpenAI 기술팀이 직접 상주하며 AI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 기성 SaaS 라이선스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엔지니어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자체적인 AI 모델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AI 파트너십과 차별화
- Customers Bank는 OpenAI의 프론티어 모델 기반 AI 여신 모니터링, 계좌 개설 등 End-to-End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한 AI Native 은행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 협력 범위는 상업금융 부문에서 은행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구현이 핵심

■ 선제적인 AI 도입으로 직원 생산성 향상과 무이자예금 유치 등 가시적 성과를 실현

- '23년 ChatGPT Enterprise 도입 이후, AI 도구를 업무에 통합하고 대규모 활용을 위한 운영 및 거버넌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 현재 은행 직원의 75%가 OpenAI 기반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주도로 구축한 AI 에이전트와 맞춤형 AI 모델은 500개를 상회
- AI 기반 워크플로우 도입으로 정규직 직원 15명에 해당하는 28,000시간을 절약한 결과, '25년 직원 1인당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 증가
- 최근에는 실시간 결제 플랫폼 'cubiX'에 AI 에이전트를 결합해 디지털 자산에서 모기지·부동산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무이자예금 유치 및 수수료 수익을 창출
 - '25년 처리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성장한 2조 달러, 평균 예금 잔액은 39억 달러

[1] "OpenAI will embed staff at Customers Bank under multiyear deal", American Banker, 2026.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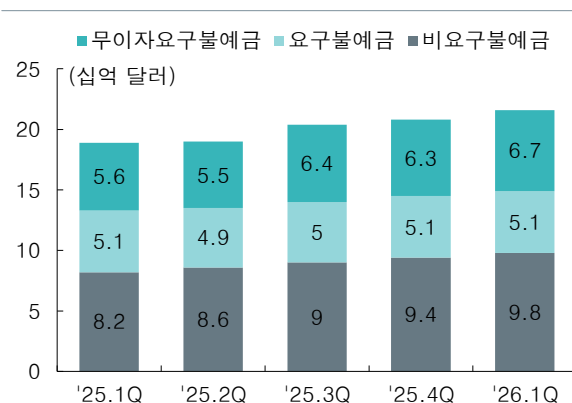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사 또한 코어 बैं킹 영역으로 AI 기업과의 공동 개발 범위를 확대

-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도 AI 챗봇 도입을 넘어 빅테크의 핵심 인력인 현장 배치 엔지니어(FDE)^[2]와 협력해 코어 बैं킹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추진
- BBVA는 OpenAI와의 FDE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형 대화형 비서 개발 및 위험 분석 프로세스 간소화 등 핵심 운영 시스템을 구축에 착수
 - ChatGPT Enterprise 배포를 시작으로 25개국 12만 명의 직원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 중
- Goldman Sachs는 Anthropic의 엔지니어를 6개월간 내부에 상주시켜 거래 회계 처리, 고객 실사 및 온보딩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개발 중

■ 국내 금융사들도 AI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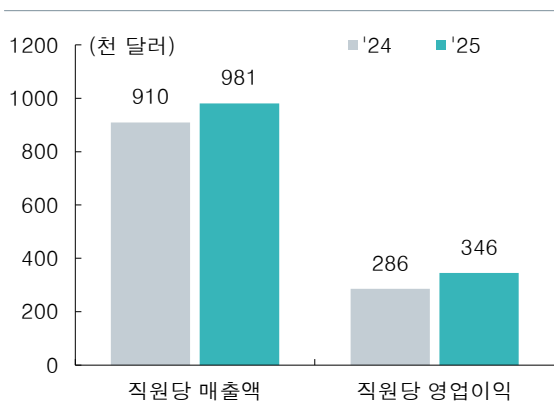
- AI 기능이 매주, 매월 단위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도 AI 기업과의 밀착 협력을 통한 맞춤형 AI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필요
- AML 에이전트, WM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등 고반복·고빈도 업무를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단계적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전략이 요구
 - Mckinsey는 AI를 핵심 인프라로 선제 투자한 선도 은행과 후발 은행 간 유형자산 자본이익률(ROTE) 격차가 최대 4% 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3]
- 다만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 데이터 접근 제한, 보안 요건 등 제도적 제약이 있어, 규제 완화 및 정책적 지원 병행이 필요 📌

■ Customers Bank의 예금액 추이



자료 : Customers Bank

■ Customers Bank의 생산성 지표



자료 : Customers Bank

[2] FDE(Forward Delayed Engineer)란 AI 기업의 엔지니어가 고객사에 직접 상주하며 AI 솔루션을 설계·구현·배포·검증하는 새로운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최근 빅테크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3] "Agentic AI will shake up banking, shrinking global profit pools", Mckinsey, 2025.11.21

싱가포르, 초고액자산가 유치 위해 WM 규제 전격 완화

이 예 린 연구원

최근 홍콩, 두바이 등 주요 금융허브 자산관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26년 5월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프라이빗계좌(PB) 개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엄격했던 KYC-AML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글로벌 자금 이탈 우려를 불식시키고, 초고액자산가 유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내 금융권 역시 WM 비즈니스 육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싱가포르는 초고액자산가 유치 및 WM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단행

- '26년 5월 싱가포르 금융관리청(MAS)은 프라이빗뱅킹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좌 개설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1]
 - 연말까지 평균 6주 이상이 소요되는 계좌 개설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며 업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 및 교육도 병행할 예정
- 고객의 자금 출처를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검증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고위험 고객 심사에 자원을 집중하며 계좌 개설 절차를 효율화
 - 이러한 조치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초고액자산가들의 접근성을 높여 자산관리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 그간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오히려 글로벌 자산가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

- 싱가포르는 '23년 발생한 28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대형 자금세탁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대폭 강화^[2]
 - 이로 인해 프라이빗뱅킹(PB) 계좌 개설 시 자금출처 검증 절차가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계좌 개설이 지연되고, 패밀리오피스 설립 승인에 최대 18개월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적체 현상이 발생
- 심사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자산가들은 홍콩, 두바이 등 대체 금융허브로 자금을 이전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부작용이 속출
 - 경직된 심사 절차가 글로벌 자산가 유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자 MAS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규제 효율화 방안을 전격 도입

[1] "Singapore tells banks to speed up account openings for wealthy clients", Financial Times, 2026.5.25

[2] "Singapore family office applicants face 18-month wait amid tighter scrutiny", Financial Times, 2023.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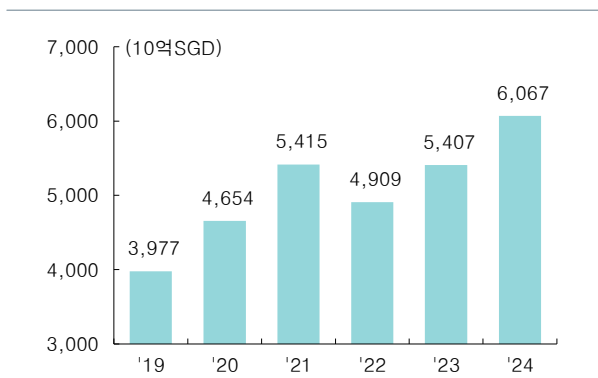
■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를 둘러싼 주요국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초고액자산가들의 국가 간 자본 이동성이 높아지며, 세제 혜택, 규제 유연성, 금융서비스 등이 자산관리 거점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요 금융허브간 경쟁이 격화
 - 특히 홍콩은 중국 본토 자산가의 지속적인 유입과 '25년 IPO 열풍을 기반으로 역외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며 세계 최대 자산관리 허브로 부상³⁾
-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파격적인 세제 경쟁력과 영미법 체계 적용, 외국인 친화적 환경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패밀리오피스를 적극적으로 유치
- 이에 맞서 싱가포르의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세제 혜택 및 패밀리오피스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W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자산관리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 MAS에 따르면 싱가포르 자산관리 산업의 운용자산(AUM)은 '24년말 기준 6.1조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순유입 자금은 50% 증가

■ 한국도 글로벌 수준의 WM 비즈니스 육성과 리스크 규제 체계의 전환이 필요

- 글로벌 자산관리 산업 경쟁이 단순 금융상품을 넘어 조세·규제·제도 등 자산관리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대
- 국내 금융기관도 고액자산가 증가 및 자산관리 수요 확대에 대응해 패밀리오피스, 승계·상속 자문 등 고도화된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독자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금융당국 또한 고객 및 거래 위험 수준에 따라 심사 강도를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법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건전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싱가포르 운용자산 규모 추이



자료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국가별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시장 규모

국가	규모(조USD)		CAGR ('25-'30)	'24년 대비 성장률
	'25	'30E		
홍콩	2.9	4.6	9%	10.7%
스위스	2.9	4.0	6%	7.6%
싱가포르	2.1	3.3	9%	10.3%
미국	1.6	2.1	6%	7.7%
영국	1.0	1.3	5%	7.0%
채널제도	0.8	1.0	5%	6.5%
UAE	0.7	1.0	6%	11.1%

자료 : BCG

[3] "The Great Reordering, Global Wealth Report 2026", Boston Consulting Group, 2026.5.27

‘킹 달러론’과 ‘달러 폭망론’으로 본 원·달러 환율 전망*

한 상 춘 연구자문위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달러화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미국-이란 전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페트로 달러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전쟁 이후 달러 가치에 대한 ‘킹 달러론’과 ‘달러 폭망론’으로 양분화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10년 전 예고한 쑨홍빈(宋鴻兵)의 화폐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국내 외환시장은 과거 대비 높은 환율 수준과 변동성을 보이나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외화유동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작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달러화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면 달러 가치가 ‘킹 달러론’과 ‘달러 폭망론’으로 양분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극과 극으로 나뉘지고 있는 달러 가치와 원·달러 환율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10년 전 예고한 쑨홍빈(宋鴻兵)의 화폐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면 극과 극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달러 가치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2차 세계 대전 이후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의 달러화 가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강달러를 선호

제 2 브레튼우즈 체제에서의 강달러는 공산주의 세력 확산 방지라는 숨은 의도

1944년 국제통화기금(IMF) 창립 이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 제도인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60년대까지는 잘 작동했다.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정지 선언 이후부터다. 그 후 과도기 스미스소니언 체제를 거치면서 1976년 킹스턴 회담을 계기로 제 2 브레튼우즈 체제로 넘어갔다. 제 2 브레튼우즈 체제란 ‘강한 달러-약한 아시아 통화’를 골간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유지해 온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이 체제를 유지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공산주의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던 숨은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금 태환 정지 선언 이후 흔들리던 달러화 위상을 지키려는 차선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심 끝에 나온 것이 페트로 달러화 구상이다. 메커니즘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비슷하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산유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는 대신 산유국은 원유 결제를 달러화로 하는 일종의 옵션 바터(option barter)제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긴 했지만 페트로 달러화 구상은 성공적이었다. 세계 산업 구조가 원유 과소비형 구조였던 데다 미국이 생산을 자제해 원유 교역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운용 메커니즘도 1970년대 두 차례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도 의외로 잘 작동돼 중동산 원유 결제의 경우 달러화 결제 비중이 한때는 90%까지 올라갔다.

페트로 달러화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원유 최대 생산국인 석유 수출국 기구(OPEC) 회원국과 최대 수요국이자 미국과 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페트로 달러화에 대한 첫 반발 국가는 이라크였다. 이라크는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W. 대통령 간의 교체기를 틈 타 원유 결제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었으나 예상대로 전쟁이란 흑독한 시련을 겪은 끝에 3년 만에 달러화로 환원했다.

이라크의 반발 이후 20년 이상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다.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 사건에 관여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과 위안화 결제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콜린 독트린과 동맹국과의 공생관계를 중시하는 앨런 독트린을 바탕으로 한 빈살만 고립 전략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 강달러 체제는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하기도 함

이와 같은 제 2 브레튼우즈 강달러 체제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초 무렵이다.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통화에 대한 의도적인 달러화 강제로 미국의 경상적자는 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여러 방안을 동원했으나 결국은 1985년 9월 선진국 간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제 2 브레튼우즈 체제에 또 한 차례 균열을 보이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5년 4월 달러화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역(逆)플라자 합의와 아시아 외환위기다. 역플라자 합의에 따라 미 달러화 가치가 부양되는 과정에서

금 태환 정지 선언으로
약화된 달러화 위상을
페트로 달러화 구축으로
제고

강달러 체제는 아시아,
중남미 등 다수
신흥국에게 외환위기를
초래하기도 함

외환위기로 아시아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강한 달러-약한 아시아 통화’간의 구도가 재현됐다. 한국 등 신흥국은 대규모 자금이탈에 시달렸다.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린스판·루빈 쇼크(Greenspan & Rubin’s shock)’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미국 금융위기는 강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희석

강달러 시대의 지속은 미국 자산시장의 거품을 발생시키고 미국의 금융위기로 연결

미국도 슈퍼 달러의 부작용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초 상황이 재연됐다. 강한 달러 시대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국 통화의 약세라는 반사적인 이익을 누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확대되고 아시아 국가의 과잉 저축분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거품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하는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중앙은행(Fed)은 전시 때나 사용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대공황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벤 버נק이 당시 Fed 의장은 한꺼번에 두 단계 이상 내리는 빅스텝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다. 유동성 공급도 무제한 국채를 사주는 양적 완화(QE)로 마치 공중에 떠있는 헬리콥터가 물을 뿌리듯이 돈을 풀었다. 브라운 방식으로 알려진 Fed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달러 가치와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제도는 1976년 킹스턴 회담 이후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약이 뒷받침되지 않아 “없는 시스템(non-system) 혹은 젤리형 시스템(jelly system)”으로 지칭된다. 그 결과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전보다 느슨하고 불안한 형태로 유지돼 왔다.

시스템이 없는 국제통화제도에서는 기축통화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더라도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은 대외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국은 이를 조정할 유인이 없어 환율 전쟁도 수시로 발생한다.

● 미국-이란 간 전쟁은 강달러화 체제에 대한 또다른 도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페트로 달러화 체제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란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최대 점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위안화 결제 유조선만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중국과 이란 간 페트로 달러화를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가 있지 않았느냐는 시각까지 등장했다. 빈살만 때와 다르게 국익보다 사익을, 동맹국과 협조보다는 고립을 지향하는 트럼프 독트린으로 페트로 달러화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타코(TACO)식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면 다른 산유국의 도전도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작년 10월에 열렸던 4중 회담을 계기로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위안화 국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 강국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5월 14일부터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 환율 움직임이다. 위안화 가치는 작년 12월 포지션(1달러=7위안)이 뚝린 데 이어 달러당 6.8 위안대까지 절상돼 왔다. 공식적인 팩트 시트는 없었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하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결제 등에서 위안화 비중이 급증하면서 페트로 달러화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할 정도다. 달러 중심 체제의 최후 보루 격인 페트로 달러 위상마저 무너지면 2차 대전 이후 유지돼 온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그랬다. 시진핑 주석의 위안화 국제화 과제와 미국 공화당의 강달러 전통과 맞물려 통화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달러당 6.8위안 선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여 모종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상하이 밀약설’이 고개를 들었었다.

지난 5월 회담에서도 ‘베이징 밀약’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뒤늦은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년 10월 이후 금융 강국론을 외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위안화 절상에 대해 트럼프 정부 집권 1기 때보다 적극적이다. 디지털 법정통화(CBDC)를 선점한 상황에서 법화인 위안화까지 위상이 높아져야 금융 강국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페트로
달러화 위상이 하락

미국-이란 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본격화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음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급중한 국가채무 우려
불식위해 약달러 선호

반면 ‘강달러’를 지향했던 집권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 정부는 작년 1월 취임 이후부터 저금리를 통한 약달러를 선호하고 있다. 제조업을 부활하고 당면한 최대 현안인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최선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국가채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출구전략 목적도 결부돼 있다.

만약 5월 회담을 통해 ‘베이징 밀약’이 있었다면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두 가지 궁금증이 남는다. 하나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스위트 스폿(sweet spot)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와, 다른 하나는 1985년 선진 5개국 간 플라자 협정처럼 다자간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차 상하이 밀약설 이후 중국의 경제 위상이 미국보다 더 높아졌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스위트 스폿을 추정해 보면 달러당 6.5위안 선으로 나온다. 최근에 원화와 위안화 간의 상관관계수가 0.7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위안화 가치가 이 선까지 절상되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형태를 취했던 상하이 밀약설과 달리 베이징 밀약설은 플라자 협정처럼 다자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상국은 선진 5개국에서 동아시아 국가로 바뀐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대상 통화국이 많아질수록 중심 통화로서의 위상이 높아진다. 미국으로서도 무역적자와 대미 투자 대상국이 주로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이다.

::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는가?

여전히 높은 원·달러
수준에 대한 불안감
존재

공교롭게도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국내 금융변수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중 1700원설까지 나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내외로 하락했다. 3500선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왔던 코스피 지수도 8000대로 회복됐다.

다만 원·달러 환율 수준이 너무 높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특정국 통화 가치의 적정선을 따지는 가장 보편적인 잣대인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적정선은 1330~1350원으로 추정된다. 전쟁 중이나 지금 환율 수준은 분명히 높다. 하지만 단순히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위기가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순수출 기여도

가 높아지면서 금리인하, 재정지출 증대보다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다. 올해 1분기 성장률(전분기비)이 1.7%에 달한 것도 GDP의 총수요 항목 기여도로 볼 때 순수출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환율 수준과 함께 외화가 부족하냐에 있어서는 적정규모를 따지는 방법이 중요하다. 일단 우리 외화 적정규모가 8,000억 달러로 지금이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됐던 국제결제은행(BIS) 방식은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직했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4200억 달러 내외로 국제통화기금(IMF), 그린스펀-기도티, 캡티운 등 모든 기준으로 본 적정규모보다 많다. 가장 넓은 개념인 캡티운 방식으로 추정한 적정규모도 3,800억 달러 내외로 나온다. 지난해 1,230억 달러가 넘었던 경상수지흑자도 올해는 2,0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 유동성 논쟁이 나올 때마다 부족론자들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왜 체결하지 못하느냐는 이유를 들어 위기론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 주무 부서인 미국 중앙은행(Fed)은 통화 스와프 체결 국가를 중국을 제외한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국에 한정한다. 기축통화로 달러화 위상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전쟁이 겹치는 지난 3월 이후 하루 평균 변동 폭이 10원을 넘어 동남아 통화보다 더 심하게 움직였다. 일부에서는 원화가 이류 통화로 전락한 만큼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국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머큐리(Mercury·펀더멘털)와 마스(Mars·정책) 요인 중 전자에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환율 변동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외환시장의 중층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통화회의를 처음 주재했던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과 변동성, 외화 유동성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 국면에서 근거 없이 단면에만 치우쳐 위기설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 편향은 긍정적 편향보다 6배 이상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외환
보유고는 다양한 적정
외환보유 기준을 만족

환율변동성 상승이
위기로 직결되지 않으며
환율 변동 관련 금융
상품 출시로 외환 시장
발전이 기여할 수 있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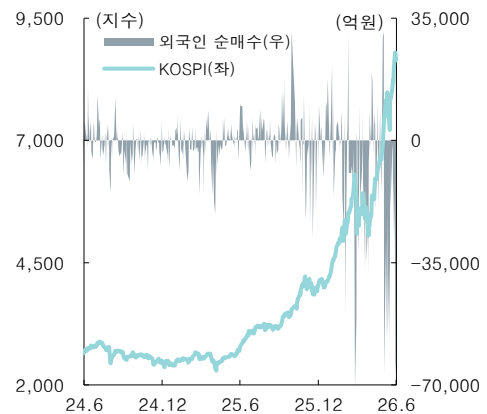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25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4월말	2.55	2.81	3.14	4.25	3.60	3.78
5월 29일	2.59	2.86	3.34	4.35	3.73	3.92
6월 1일	2.54	2.86	3.40	4.41	3.79	4.00
6월 2일	2.52	2.87	3.40	4.40	3.77	3.97
6월 3일	-	-	-	-	-	-
6월 4일	2.51	2.87	3.46	4.48	3.86	4.08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25월말	4,214.2	132,135	408	-4,886
4월말	6,598.9	358,086	685	-14,622
5월 29일	8,476.2	803,325	735	-10,681
6월 1일	8,788.4	743,300	636	-28,281
6월 2일	8,801.5	691,097	633	-63,191
6월 3일	-	-	-	-
6월 4일	8,639.4	476,386	438	-67,014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25월말	1,439.0	916.1	204.4	1,686.3
4월말	1,483.3	947.1	217.2	1,740.0
5월 29일	1,507.9	946.7	222.8	1,757.9
6월 1일	1,504.3	941.8	222.3	1,749.5
6월 2일	1,516.4	948.2	224.2	1,763.6
6월 3일	-	-	-	-
6월 4일	1,529.7	955.8	225.8	1,7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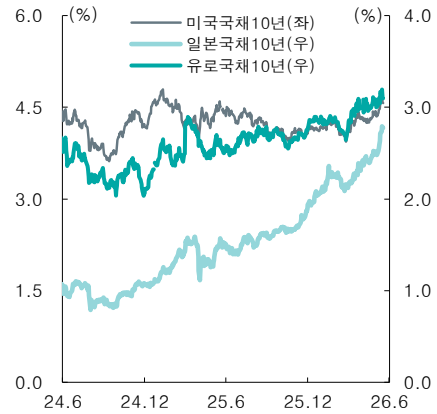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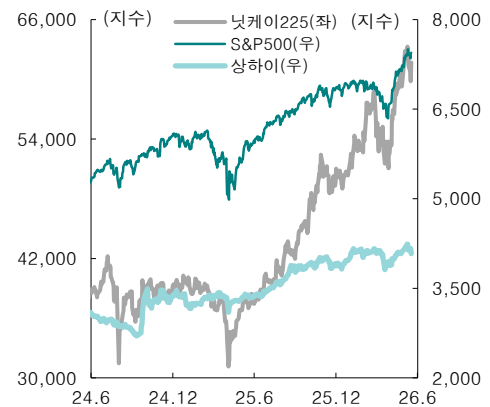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 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25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4월말	3.64	3.67	3.87	4.37	2.53	3.04
5월 29일	3.62	3.64	4.00	4.44	2.67	2.94
6월 1일	3.62	3.64	4.03	4.45	2.69	3.00
6월 2일	3.62	3.64	4.04	4.44	2.58	2.98
6월 3일	3.62	3.64	4.08	4.49	2.64	3.04
6월 4일	3.62	3.64	4.04	4.47	2.67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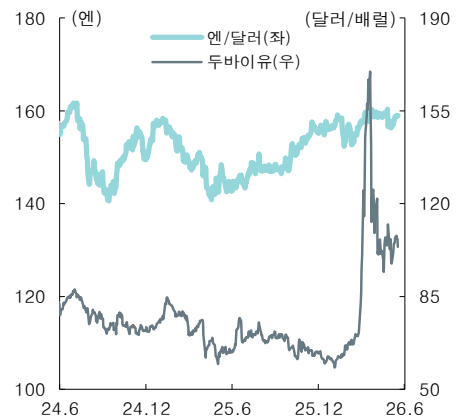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25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4월말	7,209.0	59,284.9	4,112.2	5,881.5
5월 29일	7,580.1	66,329.5	4,068.6	6,050.5
6월 1일	7,600.0	66,934.3	4,057.7	6,035.0
6월 2일	7,609.8	66,734.2	4,075.1	6,107.9
6월 3일	7,553.7	68,402.1	4,084.0	6,053.6
6월 4일	7,584.3	67,470.7	4,057.8	6,103.3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25월말	156.63	1.175	61.6	4,341.1
4월말	156.61	1.173	112.2	4,629.6
5월 29일	159.27	1.166	103.7	4,593.0
6월 1일	159.65	1.163	92.3	4,506.3
6월 2일	159.85	1.163	92.8	4,519.9
6월 3일	160.01	1.160	97.4	4,466.9
6월 4일	159.96	1.161	95.5	4,488.8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1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6월 5일 인쇄

2026년 6월 8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1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